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는 아이들의 세계

아이들은 매일 새로운 것을 만나 다양한 감각을 발휘하며 풍부한 감성을 갖고 있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체험**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유아기에만 느낄 수 있는 아이의 시선과 감정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겨 보세요.

특정 물건에
상상력을 더해가며
놀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쁨을 느끼다

자연 속에서
식물·동물과
만나다

반복적으로
즐기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다

지역 도서관을
활용하여
그림책과 친해지다



아이스크림처럼
보이지!
맛있겠다 ♪



놀이기구 타고
출발!



도와줘서 고마워!
기분 좋다 ♪



재미있는 이야기였지!
이제 또 어떤 책 읽을까?

장수풍뎅이
찾으러 가자!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가는 일상 중에서도
아이의 성장을 느낄 수 있는 순간,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이 많습니다 ♪

추천 도서는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아이들의 '관심사' 를 넓혀주는 서포터로서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관심사' 를 탐구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고, 생각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표현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스스로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만한 기회나 장소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타이밍 좋게 제안하는 어른이 관심사가 생기는 계기가 되거나 관심사를 넓혀 줍니다.

아무 말 없이 지켜봐 주고, 격려해 주고,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눈빛**이 아이의 버팀목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유아기가 끝날 때까지 자랐으면 하는 바람직한 10가지 모습' 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마음이 움직였던 체험을 유치원이나 학교 선생님께도 꼭 전해주세요.



초등학교 교육으로
잇다

유아교육과
이어지다

배움의 가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아이들을 서포트합시다!

5세부터 7세(초등학교 1학년)까지의 2년간은 평생 교육과 삶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가교기' 라고 합니다.

유아기의 성장이나 학습의 싹틈이 초등학교에서의 생활이나 배움으로 이어지는 '가교기' 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해 온 풍부한 체험을 초등학교에서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가정·지역 각 유아 교육 시설·초등학교 등이 힘을 합쳐 아이들의 성장이나 학습을 서포트합시다.





유아기 아이들은 놀이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유아기의 아이들은 다양한 사람·물건·일과 접하고, 몸과 마음을 힘껏 움직이고, 다방면으로 생각하며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봐야지...’ 하며 시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유아 교육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아기까지 아이들에게 권장하는 바람직한 모습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유아기가 끝날 때까지 자랐으면 하는 바람직한 10가지 모습’) 유아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유아기가 끝날 때까지 자랐으면 하는 바람직한 10가지 모습’을 토대로 학습을 잇는 교육·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



이거 봐!
이렇게 높이 올라왔어!



몸을 충분히 움직이는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활동하면서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하게 됩니다.

협동성



이 기지를 더 크게 만들자!



이 테이프를 써도 좋을 것 같아!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힘을 모아 도전하고, 만족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게 됩니다.

자립심



이 크레파스로 이렇게 칠하면 되려나?



스스로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마지막까지 해냄으로써 만족감과 성취감을 맛보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도덕성·규범 의식이 싹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구분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해아리거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닌자 체험 도와줄게!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사회생활과의 관계



시민회관 관장님이다! 안녕!



산책하다가 도토리를 주워 왔어!

가정이나 유아교육 시설이 아닌 바깥세상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지역에 더 애착이 생기게 되고, 사회와 나와의 관계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자연과의 관계, 생명 존중



자연을 만나고 감동하는 직접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동식물을 하나의 생명체로서 보살피고,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내가 심은 애호박이 커지고 있어!

진짜네!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거구나!



사고력이 싹틔



조금 더 높게 해보면 어떨까?



물을 더 세게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이럴까?’, ‘재미있을 것 같아!’와 같이 매일 놀이를 하면서 느끼는 각자의 흥미나 관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신의 생각을 다듬게 됩니다.

수량·도형·기호·문자 등에 대한 관심과 감각



놀이나 생활 속에서 수량 등에 익숙해지고, 기호나 문자의 역할을 깨달으며 활용하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숫자나 도형, 문자 등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나 감각이 높아지게 됩니다.

감자가 많이 나왔어! 몇 개나 될까?



말로 주고받기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말로 마음을 나누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말이나 표현을 익히고, 표현하기를 즐기게 됩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그림책을 만들어서 가게를 했어!



보여줘! 어떻게 했어?

풍부한 감성과 표현



표현하는 기쁨을 알게 되는 기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느낀 점이나 생각한 내용을 친구끼리 표현하고 나누게 됩니다.

이거 봐! 재미있는 색이 됐어!



‘유아기가 끝날 때까지 자랐으면 하는 바람직한 10가지 모습’은 평소 생활이나 놀이 속에서 볼 수 있으며, 아이들 각자의 발달 정도에 따라 향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이 모습은 가정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서포터로서, 아이가 성장하고 무언가를 싹 틔우는 모습을 느끼며 아이의 세계를 함께 즐겨봅시다.



유아기가 끝날 때까지 자랐으면 하는 바람직한 10가지 모습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유아교육의 학습을 그대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1학년은 0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유치원·보육원·인정 어린이원·가정·지역 등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배움을 이어 나가며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게 합니다.

입학 초기에는 유아기의 활동과 학습을 혼합하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즐겁게 초등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예시)
★ ‘국어’, ‘산수’가 아닌 ‘쭉쭉 성장하는 시간’ 등 친근한 과목명으로 시간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학습활동은 약 15분 정도로 짧게, 수업은 여유롭게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시간표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치원에서 해본 적 있어!



차분하게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나 시간을 마련하여 ‘기다리는 것’이나 ‘아이들의 힘을 믿고 지켜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을 보물로 가득 차 있네! 그러면 오늘은...



두근두근 장난감을 만들자!

스스로 학습 과제를 설정하거나 선택하는 활동을 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어!’, ‘됐다!’ ‘알았다!’, ‘더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혼자 할 수 있어!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유아 교육 시설에서 겪은 경험이나 아이의 추억을 끌어내는 수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